

가계 재무위험 구성요소들의 관계분석*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Financial Risk Components*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강사 정운영
교수 김경자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

Lecturer : Woonyoung Jeong

Professor : Kyungja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문헌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financial risk components of households. The financial risk of households was assumed to be composed of risk knowledge, risk attitude and risk management behavior.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700 households in Seoul and Kwangju, and there were 495 responses with usable data.

The findings showed that income stabil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risk knowledge and risk attitude. Income stability, household debt,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risk knowledge were found to have direct effects on risky vs. non-risky asset ratio. Income stability, savings,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risk knowledge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number of risky assets owned by households. Risk knowledge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risk management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재무위험구성요소(financial risk component), 위험지식(risk knowledge), 위험태도(risk attitude), 위험관리행동(risk management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Woonyoung Jeong,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 San 43-1 Yokkok 2-Dong, Wonmi-Gu, Puchon, 420-743, Korea Tel: 82-11-9863-6840 Fax: 82-42-861-6860 E-mail: wyjung77@hanmail.net

* 본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KRF-2002-037-C00034)

I. 서론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개인이나 가계가 직면하는 위험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져 개인소비자와 가계의 위험관리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위험이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손실발생의 가능성으로(김성민 외, 1999) 위험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그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그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는 주관적인 상태로 변화한다. 이 때 개인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손실을 통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보험과 같은 위험금융을 통한 위험에 대한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한다. 재무서비스 업계에서 개인위험관리가 재무관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Michael, 1995) 재무서비스 영역 중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개인의 행동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Schooley & Worden, 1996).

위험관리는 보통 예상치 못한 손실이 가져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 체계적 활동이다(정순희, 2003). 가계 재무적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계의 복지적 측면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해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삶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등의 도전이 발전을 초래하듯이 재무관리측면에서도 위험을 수용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고 그러한 시도를 통해 이윤이 실현될 때 재무위험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 위험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할 때는 가계특성과 위험관리의 목적 등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의 위험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계의 재무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재무위험에 대한 평가는 위험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위험은 미래이윤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

정도 및 위험수용성(risk tolerance)과 관계가 있다. 위험수용성이란 개인 또는 가계가 위험을 얼마만큼 수용하는가, 즉 얼마만큼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Palsson, 1996; Sung & Hanna, 1996; Hanna & Chen, 1997; Grable & Joo, 1999; Wang & Hanna, 1997; Grable & Lytton, 1998, 1999a, 1999b)이 주관적, 객관적인 위험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위험관리행동을 평가할 때 위험을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 보지 않고 여러 요소들 간의 관계로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Grable과 Lytton(1998)은 가계의 재무위험이 다차원적인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위험관리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차원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Cordell(2001)은 재무 위험관리 요소로 위험대처역량과 위험에 대한 지식,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관리행동(risk propensity)을 제시하였는데 실제 자료를 그들의 관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Grable과 Joo의 연구(1999)에서는 재무지식이 위험에 대한 태도와 위험관리행동 모두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가계경제학자들은 가계재무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고 인력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윤정혜 외, 2001; 김경자, 2001).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험관리 분야에서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인 보험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계가 부딪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가계의 위험요소, 위험관리자의 지식이나 태도, 위험관리 행동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 위험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관리 요소를 가계위험요소와 위험지식, 위험태도, 위험관리행동으로 구성하고 그 요소들의 경향과 요소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설계사들이 가계의 자산할당과

같은 투자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가계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침이 될 것이며 재무의사결정과 관련된 소비자 위험과 관련된 정부정책들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문헌고찰

위험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학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재무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위험에 대한 평가는 위험수용성(risk tolerance)의 개념에 기초하여 선택딜레마, 효용이론, 객관적인 척도들, 주관적인 측정, 탐색적 판단에 의한 방법들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Grable & Lytton, 1999b).

1. 재무위험에 대한 평가

위험은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김성민 외, 1999)으로 재무위험은 경제적 손실의 발생 기회, 또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Garman & Fogue, 1996, p. 328) 정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산과 소득의 감소, 지출과 빚을 증가함으로써(Cordell, 1996, p. 374) 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궁극적인 복지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의 위험관리는 가계의 목표나 목적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순수위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회피, 손실통제, 위험이전, 위험감소로 크게 나눌 수 있다(Garman & Fogue, 1994). 이러한 위험관리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의 정도와 유형, 위험관리능력 등에 대한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가계의 재무위험에 대한 평가는 위험수용성(risk tolerance)에 대한 측정을 통해 평가되었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

었다. 투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받아들일지나 투자선택에 대한 질문, 실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평가, 매우 특정화된 시나리오를 가진 가설적 질문에 대해 답함으로써 재무 위험수용성이 평가되었고 이에 관련된 서로 다른 요인들-순자산, 소득, 지식, 은퇴추정-을 분석하였다.

Hanna와 Gutter(1998)는 재무위험을 특정화된 시나리오를 통한 일련의 답변을 통해 측정하였고 Schooley와 Worden(1996)은 위험회피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태도와 자산할당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보았다. 그 결과 이윤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경우 위험자산에 더 할당한다고 보았으며 기본적인 위험과 이윤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계들은 더 높은 위험을 받아들이고 더 높은 이윤을 기대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행동의 결정요인은 매우 복잡할지 모르므로 특정한 위험회피측정을 통해 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Sung과 Hanna(1996)연구에서는 위험수용을 저축과 투자시의 위험수용정도로 측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개인적 특성들과 재무적 변인들에 대한 효과가 조사되었다. 그 결과 단기간의 목표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더 위험을 잘 받아들이고 30대 이상이면 은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가계와 비 투자소득이 많은 사람이 재무위험도가 높다고 밝혔다. Wang과 Hanna(1997)는 위험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총자산에 대한 위험자산의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Grable과 Joo(1999)는 개인의 재무위험수용을 위험에 대한 태도로서 측정하였고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재무지식과 교육은 위험수용과 긍정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재무지식과 소득이 클수록 위험에 대해 수용적이라고 밝혔다. Grable과 Lytton(1998)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험재무상황에서의 위험수용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재무위험을 평가하였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 등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과 재무설계, 투자상담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Hanna와 Chen(1997)은 재무위험을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를 동시에 시도하였는데 총자산 중에 재무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의 비율 즉 재무위험행동을 객관적인 위험평가로 보았고 위험회피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는 주관적인 위험평가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라 주관적인 위험도는 변하지 않으나 객관적인 위험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Gunnarsson(1999)은 위험한 가계재무행동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증명하는 연구에서 위험한 가계재무행동을 위험자산 유형의 수, 재무포트폴리오의 총가치에서 위험자산요소의 비율, 위험자산의 소유로 측정하였다.

재무위험에 대한 평가는 가족과 소비자, 재무서비스의 영역 외에도 심리학적 전문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금전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통제력, 출생 순위와 같은 요인들을 예측하려고 하였다(Liverant & Scodel, 1960; Carducci & Wong, 1991; Zuckerman, 1983).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가계 재무위험에 관한 연구들은 재무위험수용의 개념으로 가계의 재무위험을 크게 태도와 행동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으로 측정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측정함으로써 재무위험을 평가하는데 많은 혼돈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odell(2001)은 재무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 재무위험의 구성요소들을 이론적으로 나누고 체언하였으나 실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재무위험 구성요소와 관련요인들

Cordell(2001)은 가계 재무위험을 위험대처역량(risk capacity), 위험지식(risk knowledge), 위험태도(risk attitude), 위험관리행동(risk propensity)의 4가지 요소로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험대처역량(risk capacity)은 위험을 감수할만한 재정적 능력으로 연령과 생활주기, 소득의 양과 안정성, 순자산, 부채,

은퇴, 보험의 범위 등의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젊은 가계는 더 나이든 사람들보다 위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상 관련 있는 위험요소로서 이외에도 저축의 양과 막내자녀 연령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채, 저축액, 소득안정성, 막내자녀연령은 가계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위험요소로 위험대처역량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위험지식(risk knowledge)은 위험과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게 될 이윤 등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들의 재정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에 근거한 재무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위험 능력을 고려하여 자산할당을 받아들이며 이 지식은 비예측적인 시장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당황하는 경향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피력하였다. Eagly와 Chaiken(1993)에 의하면 지식은 태도와 행동간의 반응을 중재하는 것으로 지식은 태도와 행동의 직접적이고 강한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 외에 기존의 연구결과들(Titus 외, 1989; Mugenda 외, 1990; Godwin & Carroll, 1986; Markovich & Devaney, 1997)을 살펴보면 재무지식은 재무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즉 재무지식이 많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식이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Grable과 Joo(1999)연구에서는 재무위험수용성에 대한 재무지식의 긍정적 영향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연령, 성, 소득, 결혼상태, 주택소유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개인의 재무위험수용의 성향을 설명하는데 30% 이하로 나타나 이러한 변인들보다는 재무지식이나 재무 지능능력 과 같은 재무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험태도(risk attitude)는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을 어느 정도 기꺼이 받아들일느냐를 이야기 할 때의 특성 즉 금전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된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무관리 분야에서 재무

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이 입증되었다(Parrotta 외, 1998; Godwin, 1994; Godwin 외, 1986; Godwin 외, 1992; 정운영, 2001). 그러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비호의적, 긍정적/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려는 학습된 선유경향(Eagly & Chaiken, 1993)으로 외부의 정보와 경험을 통해 변경될 수 있어 지속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태도는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인 수도 있어서 방향성과 강도에 있어서 다르며 직접 관찰할 수 없고 단지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Ramaswami와 Srivastava (1993)의 연구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투자자가 위험이 낮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낮은 부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Wang & Hanna, 1997).

위험관리행동(risk propensity)은 재정적 상황에서의 실제적 재무의사결정으로 위험자산 보유수와 위험투자에 대한 비율, 자산대비 빚 비율, 소득에 대한 생명보험의 액수의 비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Cordell(2001)은 이러한 재무위험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는데 가계에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자 하는 성향은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지식에 대한 수준도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험태도는 위험능력과 위험지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위험을 잘 수용할수록 그 가계는 위험감수능력이 높을 것이며 위험을 더 잘 이해하는 가계는 위험태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위험능력과 태도는 위험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보고, 높은 위험감수능력은 위험을 잘 수용하고 높은 위험성향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낮은 위험감수능력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회피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험이 적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그들의 위험태도와 심지어는 위험관리행동을 증가할 수 있다고 봄으로서 이러한 위험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잠재적인 이윤과 더 많은 부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 위험

구성을 가계위험요소, 위험지식, 위험태도, 위험관리행동으로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목적은 위험관리 요소인 가계위험요소와 위험지식, 위험태도, 위험관리행동의 경향과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가계위험요소, 위험지식, 위험태도, 위험관리행동(위험자산비율, 위험자산보유수)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가계위험요소와 위험지식, 위험태도, 위험관리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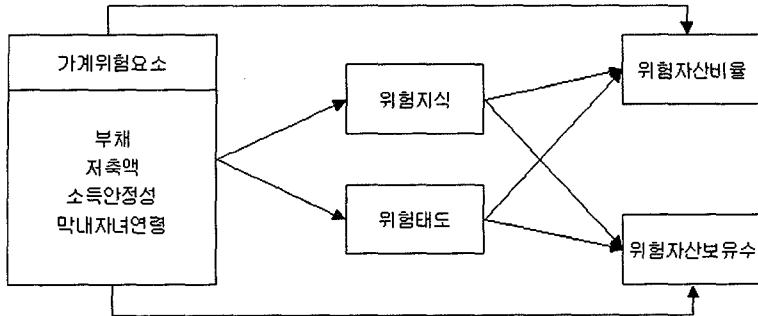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는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조사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집단이 갖는 특성의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표집을 거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완성하여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에 앞서 전공자들에게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3년 4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총 700부를 배포하였으나 연구의 내용상 민감한 부분이 많아 부실기재한 한 문항이 많고 성의 없이 답한 것으로 보여지는 질문지를 제외한 후 총 49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도구와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질문지로서 문헌고찰과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크게 가계 위험요소에 관한 문항, 재무 위험지식을 묻는 문항, 재무위험태도에 관한 문항, 재무위험관리행동에 관한 문항 조사도구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가계위험요소는 가계의 총 부채액, 월저축액, 소득안정성, 막내자녀 연령으로 보았는데 소득안정성은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와 금액의 안전성을 묻는 2문항으로 3점척도로 구성되어 척도범위는 2-6점을 나타낸다. 위험지식에 관한 척도는 Grable과 Joo(1999)의 재무지식척도 중 위험지식에 관한 척도와 우리 실정에 맞는 보험, 이자율, 투자관리 지식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재무위험에 관한 지식의 실제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것으로 척도범위는 0과 1이다. 위험태도는

Grable과 Joo(1999)의 재무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태도에 관한 문항 중 우리 실정에 맞는 총 4문항을 선정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고 신뢰도 $\alpha=0.53$ 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행동은 총 재무자산 중 위험투자의 비율과 위험투자자산의 보유수로서 측정되었다. 여기서 재무자산은 예금, 적금, 수익증권, 주식, 채권, 투자목적의 부동산,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 연금에 대한 자산으로 주택에 대한 자산 시가와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현물에 대한 시가는 제외하였으며 위험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투자목적의 부동산으로 측정되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PC용 SPSS를 사용하였다. 위험구성요소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표준편차와 같은 산술통계량을 구하였고 재무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변 수	조작적 정의	변수 값 측정
부 채	가계의 총 부채액	**** 만원
저축액	가계의 월 저축액	*** 만원
소득안정성	소득의 시기와 금액의 안정성	2문항, 2-6점
막내자녀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 세
위험지식	위험의 의미와 위험으로 인한 이윤과 손실의 가능성, 재무위험 관리에 대한 지식	0과 1, 7문항
위험태도	재무위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	1-4점, 4문항, $\alpha=0.53$
위험관리행동	재정적 상황에서의 실제적 재무의사결정	
위험자산비율	위험자산/재무자산	0-1
위험자산보유수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 수	*개

위험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재무위험 구성요소들간의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재무위험 구성 요소의 일반적 경향

재무위험 구성 요소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재무위험 구성요소는 크게 가계위험요소, 위험지식, 위험태도, 위험관리행동으로 가계 위험요소는 부채, 저축액, 소득안정성, 막내자녀연령으로 보았다. 가계의 총부채는 평균 1503만원이며 월 저축액은 평균 6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안정성은 소득의 양과 금액의 안정성을 측정한 것으로 2-6점 사이에 평균 약 4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연령은 평균 13.4세로 중등교육기의 자녀가 평균연령으로 나타났다. 위험지식은 실제 위험과 위험관련분야에 대한 이윤과 손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측정한 것으로 위험지식의 평균을 백점으로 환산하여 볼 때 평균 61.2점으

<표 2> 위험 구성요소의 일반적 경향 (N=495)

변 수	평균(분할평균) 또는 빈도(%)	표준편차
부 채	1503	5936
저축액	67	88
소득안정성	3.9	1.3
막내자녀연령	13.4	7.3
위험지식	4.9(61.19)*	1.7
위험태도	8.5(2.08)	2.1
위험관리행동		
위험자산비율	.13	.28
위험자산보유수	.50(평균갯수)	.83
없음	349(70.2)	
1개	101(20.4)	na
2개	33(7.0)	
3개	12(2.4)	

단위: 만원, *는 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로 나타나 거의 절반의 내용에 있어서는 위험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위험태도의 분할평균값이 2.08로 4점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점수를 보여 조사대상자들의 위험태도는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관리행동은 크게 위험자산비율과 위험자산 보유수로 조사대상자의 재무자산 중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3%이며 위험자산 보유수는 .50개로 위험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70%이며 위험자산을 1개보유하는 가계가 20.4%로 나타났다. 위험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가계는 매우 극소수인 것으로 보여진다.

2. 가계위험요소, 위험지식, 위험태도, 위험관리행동 간의 관계

1) 가계위험요소와 위험지식과 위험태도

다음은 가계위험요소와 위험지식, 가계관련 위험요소와 위험태도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위험지식과 위험태도에 대한 가계관련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위험지식과 위험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계위험변수 중 소득의 안정성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채액이나 월 저축액, 막내자녀 연령과 같은 요소들 보다는 소득의 안정성이 위험지식과 위험태도에

<표 3> 경로모형을 위한 최종 회귀분석결과

	위험지식		위험태도	
	β	β	위험자산 비율	위험자산 보유수
부채	.078	-.051	.175***	.061
저축액	.001	-.005	.069	.206***
소득안정성	.158***	.091*	-.022	.013
막내자녀연령	.011	.027	.166***	.135**
위험지식			.135**	.166***
위험태도			.022	.019
상수	4.044	8.148	-4.72E-2	-.197
R ²	.039	.013	.100	.113
F값	5.504***	1.627	8.286***	9.410***

* p<.05 ** p<.01 *** p<.001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즉 소득의 시기와 금액이 일정할수록 위험지식 수준도 높고 위험태도에 대해 수용적으로 해석된다.

2) 가계위험요소, 위험지식, 위험태도와 위험관리행동

다음은 가계위험요소와 위험지식, 위험태도가 위험관리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위험관리행동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위험관리행동은 크게 위험자산의 비율과 위험자산 보유수로 측정되는데 위험자산비율에 유의한 변수는 부채, 막내자녀 연령, 위험지식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자산 보유수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저축액, 막내자녀연령, 위험지식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액이 많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자산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월 저축액이 많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자산 보유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가계위험요소로서 부채는 많이 소유할수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자산비율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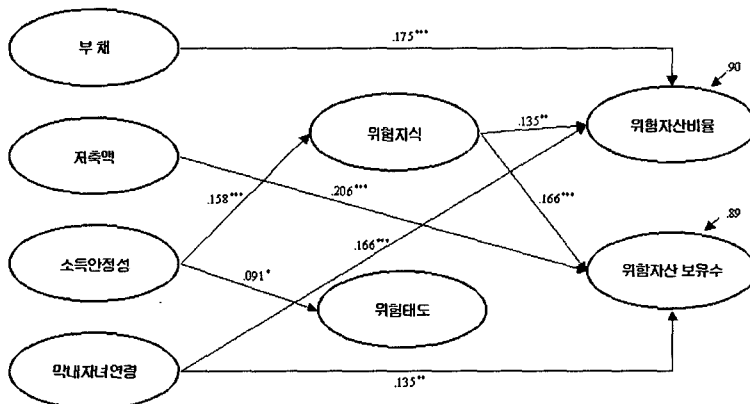
산비율과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가계의 부채는 위험으로 인한 이윤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계내의 부채가 반드시 가계의 재정복지적 측면과 상반된 결과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3) 위험구성 요소간의 인과관계

다음은 재무위험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회귀분석인 <표 3>을 토대로 인과모형 <그림 2>을 구성하고 이들의 직접,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험자산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채($\beta=.175$), 막내자녀연령($\beta=.166$), 위험지식($\beta=.135$)으로 부채가 많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지식이 많을수록 위험자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안정성은 위험자산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위험지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beta=.021$)을 미쳤다.

위험자산 보유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저축액($\beta=.206$), 막내자녀연령($\beta=.135$), 위험지식($\beta=.166$)으로 월 저축액이 많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지식이 많을수록 위험자산 보유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안정성은 위험자산보유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위험구성요소간의 인과모형

〈표 4〉 구성요소간의 인과효과

	독립변수	인과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체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위험자산 비율	부채	.175***		.175	.047	.222
	저축액	.040		.040	.087	.127
	소득안정성	.033	.021	.054	-.074	-.020
	막내자녀연령	.166***		.166	.008	.174
	위험지식	.135**		.135	.028	.163
	위험태도	.022		.022	.002	.024
위험자산 보유수	부채	.061		.061	.090	.151
	저축액	.206***		.206	.018	.224
	소득안정성	.013	.026	.039	.002	.041
	막내자녀연령	.135**		.135	.012	.147
	위험지식	.166***		.166	.034	.200
	위험태도	.019		.019	.006	.025

* p<.05 ** p<.01 *** p<.001

험지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beta=.026$)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위험지식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의 요소와 위험관리행동 사이의 중재역할을 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위험지식을 통해 위험자산의 비율을 높이고 위험자산의 보유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재무관리영역에서 재무지식은 많은 연구들(Titus와, 1989; Mugenda 외, 1990; Godwin & Carroll, 1986; Markovich & Devaney, 1997)을 통해 재무관리행동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관리행동에서도 지식과 행동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을 잘 수용하는 태도는 위험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론하고 일반적인 재무관리영역에서 재무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Parrotta 외, 1998; Godwin, 1994; Godwin 외, 1986; Godwin 외, 1992; 정운영, 2001)으로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구성 요소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소득의 안정성은 위험지식과 위험태도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이를 매개로 위험관리행동을 높이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소득의 금액과 시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위험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위험구성요소 중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채, 저축액은 가계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냐의 가계의 위험감수 능력으로 위험지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위험관리행동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는 가계내에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냐가 직접적인 위험관리행동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위험지식은 실제적으로 위험관리행동을 고무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위험지식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위험자산을 여러 가지로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실천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한 위험지식을 향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험관

리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유도하여 가계의 경제적 복지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태도가 위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태도가 가계 또는 취업상황, 그들의 친구나 친척들의 경험에 의해서 변하는 것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관찰되는 것이 아닌 추론에 의해 측정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시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각 재무구성요소들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가계관련 위험요소와 위험지식의 수준, 위험태도의 경향, 위험관리행동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가계 스스로 그들의 재무위험 구성요소를 평가하는데 지침자료가 될 것이며 재무설계사나 상담가들에게 기초적인 평가 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둘째, 각 재무구성요소들 간의 관계가 파악됨으로서 그들간의 정적인 부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험지식은 위험관리행동을 고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재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에서도 민간단체나 동사무소 교육과 같은 사회교육을 통해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 재무위험의 평가를 위한 재무 위험구성요소들간의 모형을 재검증 또는 수정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재무위험 평가를 위한 재무위험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기업 측면이 아닌 가계에 적용하여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위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계의 재정적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능력과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재무위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게 위한 회귀모델에서 모형 자체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검증된 일반화된 표본을 대상으로 이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모형자체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위험요소에 새로운 변수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태도의 신뢰도가 .53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위험관리행동과 같은 요소들의 하위영역-보험료 비율, 빚의 비율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자(2001). 인터넷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07-220.
- 김성민, 김재욱, 김현수(1999). *생활재무관리*. 서울:경문사.
- 윤정혜, 김경자,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한국소비자학회*, 12(3), 89-108.
- 정순희(2003). *소비자재정설계*. 서울: 신정.
- 정운영(2001). 재무관리체계모델을 적용한 도시가계의 재무건전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arducci, B. J. & Wong, A. S. (1991). Sensation seeking and risk taking in everyday money matter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7, 308-320.
- Cordell, M. D. (1996). *Fundamentals of financial planning*. The American college: Bryn Mawr, Pennsylvania.
- Cordell, D. M. (2001). Risk PACK: How to evaluate risk toleranc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June, 36-40.
- Eagly, A.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Toronto: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 Garman, E. T. & Fo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Boston, MA: Houghton Mifflin.
- Grable, J. E. & Lytton, R. H. (1998). Investor risk tolerance: testing the efficacy of demographics as differentiating and classifying facto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1), 61-73.
- Grable, J. E. & Lytton, R. H. (1999a). Assessing financial risk tolerance: do demographic, socioeconomics, and attitudinal factors work?,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1-9.
- Grable, J. E. & Lytton, R. H. (1999b). Financial risk tolerance revisited: the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instrument. *Financial Services*.
- Grable, J. E. & Joo, S. H. (1999).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a future examination. *Consumer Interests Annual*, 45, 53-58. *Review*, 8, 164-181.
- Godwin, D. D. (1994).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newlywed's cash flow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161-190.
- Godwin, D.D. & Carroll, D. D. (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 of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Godwin, D.D. & Koonce, J. C. (1992). Cash flow management of low-income newlyw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7-42.
- Gunnarsson, J. (1999). Differential validity in models of risky household finan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olicy*, 22, 281-312.
- Hanna, S. & Chen, P. (1997). Subjective and objective risk tolerance: implacation for optimal portfolio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17-26.
- Hanna, S. & Gutter, M. (1998). A theory based measure of risk tolerance.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Financial Services*, 10-12.
- Liverant, S. & scodel, A. (1960).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s determinants of decisoin making under condition of risk. *Psychological Reports*, 7, 59-67.
- MacGrimmon, K. P. & Wehrung, D. A. (1985). A portfolio of risk measure. *Theory and Decision*, 19, 1-29.
- Markovich, C. A. & Devaney, S. A. (1997). College senior's personal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all, 62-65.
- Michael, V. (1995). Risk averse or tolerant? companies must choose. *Corporate Cashflow*, 16(1), 22-27.
-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4-360.
- Palsson, A. M. (1996). Does the degree of relative risk aversion vary with househol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conomics Psychology*, 17, 771-787.
- Parrotta, J. L. & Johnson, P. J. (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Schooley, D. K. & Worden, D. D. (1996). Risk aversion measures: Comparing attitudes and asset alloction. *Financial Services Review*, 5, 87-99.
- Sung, J. & Hanna, S. (1996).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20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Wang, H. & Hanna, S. (1997). Does risk tolerance decrease with a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27-32.

Zuckerman, M. (1983). *Biological bi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년 2월 24일 접수, 2004년 7월 5일 채택)

부 록

<부록 표 1> 위험지식 측정문항

문 항 내 용
1. 신탁상품은 신탁된 자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므로 수익률이 변동된다.
2. 보험은 사고 발생시 재정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3. 신용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수수료는 같다.
4. 일단 첫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5.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내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증권의 시장가격도 하락한다.
7. 대부분의 경우 투자에 있어 이익률이 높으면 위험정도가 높다.

<부록 표 2> 위험태도 측정문항

문 항 내 용
1.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저축이 마음이 더 편하다
2. 나는 '위험' 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바로 손실을 생각한다
3. 투자할 때는 안전성보다는 이윤이 더 중요하다
4.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투자할 수 있다.